

과학이 움직이는 세상, 기술이 여는 미래

2025년 제19회 전북과학축전, 내일부터 사흘간 전주대 대운동장에서
100여개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람객들에 과학적 즐거움 선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7~19일 3일간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제19회 전북과학축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이 움직이는 세상, 기술이 여는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북과학축전은 17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 간 과학체험관·핵심산업관·과학기술관·로봇주제관 등 총 100여 개의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과학체험관에서는 도내 교사들

이 학생들과 함께 기획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43개 교육과정 연계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한 '복록 튀고 팔랑팔랑! 탄성에너지로 나는 과학 놀이터', 'DNA 팔찌와 유전자 함수 만들기' 등 초·중·고교 과학의 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어 학생들의 창의력과 과학적 사고력을 겨루는 '사이언스 마이크' 등 경연대회가 진행되고, 과학 원리를 활용한 특별 퍼포먼스가 펼쳐져 관람객

들에게 과학적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과학축전이 학생들에게 과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과학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과학축전 누리집(www.jbsf.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과학축전 포스터

전북학생의회, 학교 조리실무사 인력 배치 기준 개선안 등 심의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 열어
분과위 안건 상정 등 7건 심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2층 강당에서 '2025 전북학생의회 제2기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3분 자유발언(2건) △분과위원회 안건 상정 및 토의(5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3분 자유발언에서 이강준 학생의원은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위한 관심 확대'를 주제로, 백연아 학생의원은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와 학생 선택권 보장'을 주제로 각각 발언하며 학생들의 권리를 강조했다.

분과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으로는 △학교 조리실무사 인력 배치 기준 개선안 △도내 청소년 공인 영어 시험 응시료 지원안 △인권 존중 학생 서포터즈 운영안 △전북형 학생 청원 몸무즈만 연계 제도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 등이



1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25 전북학생의회 제2기 정기회'가 열린 가운데, 학생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하고 있다.

있다.

김수호 학생의장은 "오늘 경험이 보다 나은 학교, 더 나은 전북교육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성장의 계기로 만들

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의원들이 학업과 의정활동을 병행하며 적극 참여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리

다"며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과 함께 만드는 협력 이야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진안 문화의집 2층 마이홀에서 '2025 진안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안 지역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손잡고 만들어 온 교육공동체 협력 성과 및 지역 맞춤형 교육 거버넌스 구축의 경험을 공유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순천폴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임경환 대표는 지역교육을 살리는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임 대표는 진안 지역과 같은 농촌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주체를 연결



15일 진안 문화의집 2층 마이홀에서 '2025 진안교육정책포럼'이 열린 가운데, 이미영 지역과함께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패널 토론에 나서고 있다.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지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괴산 온마을배움터 협회진 센터장 △장수 폴뿌리교육

지역과함께자문위, 2025 진안교육정책포럼 개최
지역교육 생태계모델 조성 지원방안 필요성 강조

지원센터 이정영 센터장 △진안교육지원청 이은정 장학사 △진안군청 김영주 팀장이 참석해 농촌형 중간지원조직 사례, 교육청·지자체·중간지원조

직 간 협력 경계와 지원 전환 방안, 지자체의 교육발전 역할을 발표했다.

특히 좌장을 맡은 이미영 지역과함께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민·관·학이 협력해 진안만의 특색을 살린 지역교육 생태계모델 조성을 위한 실제적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포럼은 진안 지역교육공동체가 지난 9년간 걸어온 협력의 길과 성과를 되짚어 보고, 지속가능한 맞춤형 교육지원체계 구축과 미래 교육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교육공동체와 함께 활기찬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 통폐합·학력 격차 해법 찾는다

제5회 진짜민주진보 교육포럼, 30일 전주교대 김서종홀서

'학교 통폐합'과 '학력 격차'라는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5회 진짜민주진보 교육포럼'이 오는 30일 오후 4시 전주교육대학교 김서종홀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김승환 전 교육감 시절 강조된 혁신학교 철학을 성찰하고, 보다 실질적인 교육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시각을 반영해 '진짜민주진보' 교육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날 전북 교육계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발제에 나선다.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는 '전북교육의 현주소: 너무 작은 학교의 통합과 그 활용방안'을, 김운태 우석대 대외협력부총장은 '지역의 학력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 황호진 전 부교육감은 '예측이 어려운 미래시대를 대비한 대안교육의 방안'을 주제로,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는

'지역 공공교육 인프라 조성'과 학교 통폐합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교육계 인사들도 토론에 참여한다. 서재복 전주대 교육학과 교수,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 정성운 전북대·전주교대 겸임교수, 박지웅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대안을 제시한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전북 교육계가 오랜 기간 지역 교육정책의 흐름을 주도해 온 기존의 담론을 성찰하고, 다양한 시각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길 기대한다. 아울러, 학교 통폐합과 지역 학력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럼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과 교육 관계자는 링크(<https://forms.gle/hHGh8Td1N8bgedRL6>)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에듀페이 지원사업’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서 장려등급에 선정돼

'전북에듀페이' 지원사업이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추진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북에듀페이'가 장려등급에 선정되고, 업무담당자인 학교안전과 김효선 주무관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직 문화를 혁신하고, 창의적인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대회로, 2019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개최되고 있다.

'전북에듀페이' 지원사업은 학업 중단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도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2023년도부터 추진됐다.

그동안 교육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했다는 호평을 받아 왔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학생 장학금 지원 등 상생 효과로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명실상부한 전북의 대표 교육복



교육부가 추진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북에듀페이'가 장려등급에 선정됐다. 사진은 업무담당자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김효선 주무관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받고 있는 모습이다.

지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전북에듀페이 지원사업의 정책적 효과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현 노력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포상해 교육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최초 IB 월드스쿨 공식 인증

전주아중초, IBO로부터... 수업·평가 혁신 현장 정착 기반 마련

전주아중초등학교(교장 김태유)가 지난 13일 국제비칼로레아(IB) 본부(IBO)로부터 초등학교 프로그램(PYP) IB 월드스쿨(공식 인증학교)로 최종 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성과는 2024년 7월 23일 IB 후보학교로 지정된 이후 약 1년 3개월 동안 학교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얻어낸 값진 결과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전북형 수업·평가 혁신을 본격화할 초석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월드스쿨 인증으로 교실에서의 탐구 중심 수업과 성장 중심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IB 월드스쿨 인증교는 IBO의 정기 컨설팅과 국제 표준 자료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정기적 자체 평가 및 외부 점검을 통해 수업·평가 품질을 관리한다. 더불어,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업·평가의 질 제고와 학생 성장의 가시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성과를 계기로 MYP(중학교 과정)과 DP(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월드스쿨이 연차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관심·후보·인증 단계 전 주기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여건에 따른 컨설팅, 교원 전문성 강화(IEBC·과정별 워크숍·현장 코칭), 평가 혁신 모델 보급(루브릭·포트폴리오·피드백),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내실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전주아중초의 월드스쿨 인증은 전북의 교실에서 IB가 공식적으로 실천되는 출발점이자, 수업·평가 혁신을 본격화할 초석"이라며 "PYP를 넘어 MYP와 DP까지 연속성 있는 확산이 이뤄지도록 세밀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유 교장은 "IB 인증은 전주아중초가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아이들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며 다양한 문화와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

내달 19일 창업경진대회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다음달 19일 '2025년 창업아이디어 배틀그라운드(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기전대학 RISE사업단 주관으로, 학생들이 직접 창업 아이디어를 기획·제작·전시하고, 전문가들의 심층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참가 학생들에게는 시상과 더불어 교내 장학금 및 소정의 상품도 제공된다.

전주기전대학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교내 창업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창업 생태계와 연계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창업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 가능성으로 발전시키고, 시장의 피드백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창의적 도전의 장을 제공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카작 국립농업대와 국제협력 체제 구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14일 카자흐스탄 최초의 농업특성화 대학인 카작 국립농업대학교(Kazakh National Agrarian University)와 국제 교육·연구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3시 전북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오봉 총장과 아킬베크 쿠리슈바이예프(Akhytbek Kajgulovich Kurishbayev) 카작 국립농업대학 이사장 겸 총장이 참석해 양 대학 간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기 공동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번 협약은 양 총장이 추석 연휴 기간 중앙아시아 주요 대학을 방문해 국제협력 기반을 확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교수와 연구자 등 전문가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술 공동연구는 물론 교육과 연구를 연계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원 단계에서 연구 인턴



십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해외 연구기관과 산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과 생물자원, 수의학 등 양 대학의 공동 연구 기반을 토대로 공학기술, 자연과학, 수학·통계, 사회과학, 디지털 기술 등으로 협력 분야가 확대돼 교육과 연구, 산업을 아우르는 입체적 국제협력 모델을 구축할 전망이다. 더불어 연구 인턴십과 전문가 연수 교환을 추진함으로써 학생과 연구자가 상호 대학을 오가며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장은성 기자